

남원 도동동,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홍보

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며, 남원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통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시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 지급을 완료해 주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철 도동동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 민생회복 지급관련 국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피해 주의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입암면, 폭염 속 취약계층에 '시원한 손길'

정읍시 입암면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위문물품을 6일간에 걸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입암면은 폭염에 취약한 3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해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했고, 경로당 40개소에는 수박과 커피믹스를 제공해 무더위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간식 지원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기회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병 면장은 "폭염 대비 물품 지원은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운봉읍, 손 선풍기 전달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1일 1가구 폭염 대응'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상권을 돌며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손 선풍기를 전달하고 폭염 대비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폭염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상황을 함께 점검, 특히 골목상권과 노후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상태와 침수 위험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했다. 한 상인은 "여아전을 오래 틀기엔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이런 작은 선풍기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며, 읍에서 건강과 안전까지 챙겨주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읍장은 "1일 1가구 폭염 대응 캠페인을 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환경석면협회 임직원, 김제시 고향사랑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대표 송석환) 임직원 10명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2020년 설립돼 석면 조사 및 처리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지 원사업의 위탁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송석환 대표는 "김제시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직원분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석환 대표 및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임직원들에 감사의 표한다"며 "기부금은 김제시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 무형유산 넘어 국가유산 승격 추진

무주군, 안성낙화놀이 재연... 주민 등 100여명 참여 낙화봉 만들기·매달기 등 체험

무주 안성낙화놀이 공개 행사가 지난 21일 안성면 장기리 구랑천변에서 개최됐다. 두문라낙화놀이보존회(회장 박일원)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안성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두문라낙화놀이보존회원 등 안성면 주민 1백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맺은 두문라낙화놀이보존회와 안성고등학교(교장 최용규)는 해마다 안성고등학교 축제와 연계해 구랑천변에서 낙화봉 만들기과 매달기, 낙화놀이 등을 체험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지키고 되살린 자랑스러운 전통 불꽃놀이를 직접 재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라며 "할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로 전해진 낙화놀이가 다시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 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落花)놀이는 떨어지는 불꽃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지에 색과 숫, 소금을 넣어 만든 낙화봉을 긴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그 줄을 타고 이어지는 불꽃이 장관이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2006년부터 낙화놀이를 복원하기 시작해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을 받았으며 무주반딧불 축제를 통해 명성을 쌓고 있다. 현재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에는 낙화놀이 보존과 전수 활동을 위해 지어지 318.165㎡(대지 1.846㎡) 지상 2층 규모의 낙화놀이 전수관이 마련돼 있으며 홍보 영상관과 낙화봉 체험관, 낙화놀이 시연관 사무실 쉼터,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무형유산 전수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산 승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낙화놀이의 정체성을 검토하고 전승과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에 살아요" 정읍아산병원,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힘 보태

정읍의 여러 기관들이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동참하는 가운데, 정읍아산병원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보건위생과 읍민관 과장과 직원들이 정읍아산병원을 방문해 '인구사랑 범시민운동'과 '정읍애 주소찾기'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시가 추진 중인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민과 기관 단체가 힘을 모아 '주소 찾기'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지역 인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역 경제와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읍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병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 인구 유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농협·철도공사 영동역, 기업-농촌이음 운동 업무협약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과 한국철도공사 영동역(역장 이재철)은 22일 영동역 회의실에서 기업-농촌이음 운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과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영동농협 조합장, 무주농협 조합장, 영동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농도교류 활동 △농촌인물소통 및 재해복구 활동 △농산물 판로 확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남송회, 호훈단체에 백미 전달

남원지역 기관장 모임인 남송회(회장 최경식 남원시장)는 22일, 남원호훈회관에서 호훈단체에 백미(4kg) 200포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남송회 회원들과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및 전물군경미망인회 회장이 참석했다. 남송회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남원지원장과 남원지정장 등 주요 19개 기관장 모임으로, 2015년부터 해마다 호훈가족을 위한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호훈단체협의회장(장귀갑)은 "10년 연속 잊지 않고 호훈단체에 후원해 주시는 남송회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회장은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안락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 무주서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22일 무주군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무주군 인구협력과 김성욱 과장, 여성청소년팀 김미경 팀장, 김정옥 주무관과 여성정책연구소 유은경 소장, 김재민 연구위원 그리고 거점형양성평등센터 임현정 센터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최희선 컨설턴트와 장지혜 전담연구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정책연구소와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거점형양성평등센터의 연구 및 사업을 소개하고, 무주군의 여성가족 사업 및 성평등 업무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지역 여성정책의 성주류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경제야 놀자' 동아리 고창군의회 체험학습 진행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2일 '경제야 놀자'라는 관내 초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제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예산의 편성 및 심사 등 의회의 경제적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결된 경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의회를 방문한 동아리에는 '고창교육지원청 학교밖학습지원 경제아날자팀'으로 고창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경제·교육 연합 동아리로, 소속된 고창초 8명, 심원초 2명 전원이 고창군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 중에서도 예산의 성립과 사용 등 군민의 세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쓰이게 되는지 자세 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민규 의장은 "어린이들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향후 고창군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어린이 의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은행, 진안군에 여름 나는 '선물꾸러미' 전달

전북은행(부행장 정상익)은 22일 진안군을 찾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3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60박스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후원된 선물꾸러미는 여름 이불, 선풍기 등으로 구성돼 더위에 취약한 관내 주민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전상의 부행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환 부권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은행의 꾸준한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은행, 무주군에 시원 키트 70박스 기탁

(주)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2일 무주군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시원(wd) 키트' 70상자(3백50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전상의 부행장과 국종만 무주지점장이 함께 했으며 여름을 시원하게 쿨로시, 쿨타를 선풍기로 구성된 키트를 전달했다. 시원(wd) 키트는 전북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물품으로 무주군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상의 부행장은 "전북 대표 은행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에 전달되는 시원 키트가 폭우 끝에 찾아올 폭염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전북은행은 올해 2월에도 선물꾸러미(즉석밥, 라면, 김 등 구성) 130박스(390만 원 상당)를 기탁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보건 위생용품 110박스(275만 원 상당)를 기탁해 귀감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